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 – 2020년 4월 29일

“원격 수업은 학생들의 적응 유연성을 키우는 기회입니다”



4월 28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채드윅 국제학교의 프레드릭 T. 힐(Frederick T. Hill) 총괄교장이 원격 수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교육자가 밝히는 온라인 교육의 올바른 역할

김재헌 기자

채드윅 국제학교는 한국에서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한 1월 이후 가장 먼저 원격 수업을 도입한 학교 중 하나다.

2월 6일에 19번째 확진자가 인천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송도 내 모든 학교에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당시 방학 중이던 한국 학교의 경우 당장 온라인 교육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은 없었다.

그러나 미국계 국제학교인 채드윅 국제학교는 2학기를 한 달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학교 임직원들은 3일 내로 자료를 수집한 후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했다.

채드윅 국제학교의 프레드릭 T. 힐 총괄교장은 지난 화요일 진행된 코리아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저희는 매일 여러 시간을 들여 학생들이 액세스하는 동영상과 스크린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줌(Zoom)을 이용하는 실시간 교육도 도입했습니다. 상황은 시작 단계부터 매우 어려웠죠."라고 말했다.

학교 수업을 통해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체득한 고학년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반면에, 원격 수업 시스템에 참여할 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유치원의 어린 학생들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

"4살 아이가 부모 없이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호자가 항상 옆에서 도와줘야 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상황이 더욱 어렵습니다."라고 힐 교장은 설명했다.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에 대해 부모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명확하게 나뉘었다. 부모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수업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격 수업을 반대했다. 찬성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고, 학교 측에서 원격 수업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활동을 제공해주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피드백을 통해 교육 옵션을 조정하여 더 나은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영상 수업 시간과 학생이 주축을 이루는 활동 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들은 학생들이 화면에 직접 문제를 푸는 대신 연필과 종이로 과제를 진행한 후 사진을 업로드하도록 했다. 이는 연령대에 따라 주의력이 지속되는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힐 교장은 "원격 수업에서는 학교와 부모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학교의 교육 접근 방식과 목표를 지지하는 학부모님들 덕분에 원활한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음 한 주의 수업 일정과 교육 목표를 이메일로 전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 보이는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 목표에 도달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4월 28일, 채드윅 국제학교 유치원의 레지나 델 카르멘(Regina Del Carmen) 교사가 학교의 원격 수업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수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채드윅 국제학교 제공).

학교는 학부모와의 온라인 모임을 주관하여, 추후 질의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했다.

힐 교장은 "학생들의 가족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교는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채드윅의 교육 방식을 온라인 콘텐츠로 재구성하는 과정 또한 매우 어려운 도전이었다.

"저희는 모두가 모여 있는 교실이 아닌 각자의 방이라는 환경에서 학생들이 토론하고 단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도 방법을 연구해야 했습니다."라고 힐 교장은 설명했다.

힐 교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 부엌과 같은 환경이나 부모님의 도움이죠.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는 진행하기 힘들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힐 교장은 새로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원격 수업이 학생들에게 적응 유연성, 창의성, 비판적 사고, 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힐 교장은 향후의 계획도 밝혔다. "물론 현재 상황이 우리가 원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모두 이러한 상황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던 결과는 물론 미흡했던 점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이렇게 배운 것들을 모아서 대면 수업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등교개학일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아직 없지만, 채드윅 국제학교는 일찍이 준비를 시작하여 학생과 학교 임직원을 안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여러 한국 기업이 재택 근무와 출퇴근을 교대로 운영하는 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힐 교장은 이러한 조치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학생들이 캠퍼스에 모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가운데 학업에 임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계획 중인 조치 중 하나는 학교 식당에 플라스틱 가림막을 설치하여 점심 시간에 학생들이 거리를 두고 식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힐 교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아직 최종 계획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나, 외부 컨설턴트와의 협력과 내부 전담팀 구성을 통해 다양한 학교 운영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인천교육청 지침을 준수하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올해로 채드윅 국제학교는 개교 10주년을 맞이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양한 기념 행사와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과 임직원들은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이라는 학교의 설립이념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 학년 학생들이 코로나 19 기금 모음 운동을 진행했고, 교사들은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안면 보호대를 제작하여 기부했다. 학생 동아리 중 하나는 손 소독제를 지역사회 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

힐 교장은 인터뷰 마무리에서 "이러한 활동은 생활에서 빛을 발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미래를 위한 50개의 삶의 기술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학교의 계획을 소개했다.